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농성특별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7년 7월 11일(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약속한 건 지켜라!

합의사항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보쉬 규탄하며 천막농성 중

지부, 보쉬 앞 천막농성 돌입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보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7월 5일(수) 지부 총파업을 보쉬 앞에서 진행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보쉬자본은 올해 임단협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도 모자라 노사 합의 사항으로 가입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 체계 자체를 아예 무시한 것이다. 지부는 보쉬자본이 보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쉬의 일방통행 우려스러워

지부는 보쉬자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보쉬자본은 이미 2012년 부강의 보쉬전장에서 노조파괴를 자행한 적이 있다. 보쉬전장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임단협 교섭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대전 한국로버트보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부교섭에서 작년에 합의된 사항도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올해 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

다며 교섭 자체를 파탄내고 있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 와중에 노사 합의사항이었던 사용자협의회도 탈퇴했다. 금속노조와 산별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최근엔 지회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트집잡기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올해 임금교섭 뿐만이 아니라 뭔가 꿩꿩이가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지부 집중투쟁은 계속된다!

올해 지부는 보쉬자본을 악질 자본으로 선정했다. 지부교섭을 방해하고 금속노조 질서를 흐트리는 악질 자본에 대해서는 지부 차원의 집중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미 7.5 지부 총파업 투쟁을 보쉬 앞에서 개최한 바 있다. 김정태 지부장은 7/5일 이후 보쉬 앞 천막 농성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올해 투쟁이 마무리 될 때까지 보쉬 앞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7월 12일(수) 지부는 한차례 더 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장소는 대전노동청이지만 보쉬자본을 향한 경고의 뜻은 변함없다.

노조할 권리 쟁취! 2017임단투 승리!

7.12 다시 한 번 총파업으로!

<7/12(수) 14:00 대전노동청 앞>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감독 할거면 제대로 해라!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집중 감독하겠다고 나섰다. 7월달을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MBC, 삼안, 세스코, 브링스코리아 등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150개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이런 행보는 우리에게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부 산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그동안 벌어져 온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손놓고 있던 노동부가

실효성있는 감독을 할지 걱정이다.

지부는 11일 대전노동청장과 면담을 통해 지부 소속 사업장들 중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그동안 노동부가 방치해온 결과 현상이 얼마나 불법 천지가 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요구사항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지부의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2일 지부 총파업은 그 첫 시작이다.

재벌 대기업 책임 강화하면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하다!

법정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진통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열린 심의회에는 중소기업, 소상공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불참해 파행으로 이어졌다. 노동계는 ‘1만원’을, 사용자측은 ‘6천625원’을 제시한 뒤로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고 주장한다.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꼴이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원청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건물주의 임대료, 가맹점 본점의 횡포다. 알바생 임금 몇푼 아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 영세업체 뒤에 숨어서 또다시 자기들 배불릴 생각뿐이다. 소상공인들도 그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 대기업의 책임을 이야기해야 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모든 노조에 노동3권 보장!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1인시위 + 보수전장 독일대사관 1인 시위

